

『유랑지구(流浪地球)』, 애국주의를 유랑하다

김남희*

〈目 次〉

1. 들어가며
2. 영화 『유랑지구』의 등장 배경
3. 중국식 영웅과 세계 상상
4. 중국의 지식체계 속 『유랑지구』 해석
 - 1) 해석 하나: “중국의 첫 하드SF영화”
 - 2) 해석 둘: “중화 전통문화의 우수성”
5. 나오며

1. 들어가며

2019년 중국의 춘제당(春節檔, 설맞이영화) 시장은 SF 블록버스터 『유랑지구(流浪地球)』(감독: 귀관, 郭帆)의 돌풍 속에 막을 내렸다. 대표작 『삼체(三體)』로 아시아 작가로는 최초로 2015년 제73회 휴고상을 수상한 류츠신(劉慈欣)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유랑지구』는 2019년 2월 5일 개봉 이후 한 달이 조금 넘는 상영기간 동안 입장 수입 46억 위안(약 7천800억 원)을 넘기며 『전랑(戰狼)2』에 이어 역대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장대한 과학적 상상력을 중국적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점, 자국의 산업기반 위에서 불만한 시각효과를 구현해낸 점, 그리고 ‘중국 SF영화’라는 타이틀을 달고 해외시장에서 좋은 흥행성적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중국 내에서는 대체로 ‘중국 SF영화의 원년’의 도래를 반기는 분위기다.¹⁾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

1) 같은 기간 눈길을 끈 춘제당 중 한 편인 『크레이지 에일리언(瘋狂的外星人)』 역시 류츠신의 소설 『시골선생님(鄉村教師)』을 영화화해 약 22억 위안(3천700억 원)의 수익을 올렸

영화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의 생산도 뒤따랐다. 우선 이전 중국 SF영화에 비해 “전체적인 진보”²⁾를 이루었다는 관점으로, 지식구조, 논리전개, 시각효과, 인물묘사, 기술윤리 등 요소가 고루 발전하여 “중국 하드SF영화의 시대를 열었다”³⁾고 평가하고 있다. 영화산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유랑지구』의 해외진출은 중국 영화공업화가 성숙해가는 과정⁴⁾이라거나, 내용에 있어 과학기술과 정신적 가치에 대한 사유, 중국 농경문화 특유의 집과 토지에 대한 애착과 새로운 터전을 만들려는 노력이 어우러져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안”이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획득했다는 등 긍정적 평가가 다수를 이룬다.⁵⁾ 영화의 성공을 반기는 환호성 속에서도 조심스러운 비평이 눈에 띄는데, 그간 춘제당 영화가 애국주의 색채가 너무 강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유랑지구』에는 국가주의적 내용이 별로 없다”는 평론가의 비평을 전하는가 하면⁶⁾ 중국적 스토리, 하드SF, 중국SF영화 원년이라는 타이틀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⁷⁾

영화 『유랑지구』의 대중적 성공 이후 나타나고 있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 영화가 초·중등교육과정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기관과 관련 매체에서 앞 다투어 『유랑지구』 관련 대입 출제 포인트를 내놓고 있”⁸⁾는 현상에 호응이라도 하듯, 9월 6일 중국 교육부에서는 『유랑지구』를 포함한 14편의 「제39차 전국 초·중등학생에게 추천하는 우수 영화 목록(第39批向全國中小學生推薦優秀影片片目)」을 발표했다.⁹⁾ 앞서 나온 『유랑지구』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다. 『유랑지구』가 정통 SF 장르의 문법에 충실했다면 『크레이지 에일리언』은 블랙코미디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두 편의 동시 개봉은 SF 장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2) 許曉青, 「科幻電影《流浪地球》“意外”大獲成功的背後」, 『中國日報網』 2019년 2월 22일, <https://baijiahao.baidu.com/s?id=1626132982272896146&wfr=spider&for=pc>.

3) 姚利芬, 「《流浪地球》開啓中國硬科幻電影時代」, 『科技導報』 2019년 2기.

4) 成文, 「電影工業化視域下的中國電影走出去」, 『現代視聽』 2019년 4기.

5) 張慧瑜, 「《流浪地球》: 開啓中國電影的全球敘事」, 『當代電影』 2019년 3기.

6) 嚴敏, 「別樣“地球”征服全球」, 『新民週刊』 2019년 2월 20일, <http://www.yidianzixun.com/article/OLKNLiYg>.

7) 林品, 「中國故事·硬科幻·元年—《流浪地球》熱潮中的三大迷思」, 『電影評介』 2019년 9기.

8) 林品, 같은 글.

9)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사이트, 「教育部辦公廳中共中央宣傳部辦公廳關於印發《第39批向全

반응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재생산되는지는 현재와 향후 중국의 주류이데올로기가 구성되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일단 영화에 대한 비판을 앞으로 개선해갈 부분에 대한 제안 정도로 이해한다면, 대체로 『유랑지구』가 장르에 있어 더욱 다양해지고 기술적으로 발전했으며 스토리텔링이 성숙해진 중국 영화의 발전 성과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또한 이 영화가 많은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흥행에 성공하고, 다양한 담론과 교육적 재생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조금 바꾸어 말하자면 영화뿐 아니라 오늘날 중국의 산업, 문화의 전반적인 발전 성과와 향방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만큼 『유랑지구』에는 현재의 중국을 보여주는 다양한 요소가 농축되어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산업 전반의 발전, 국제 환경과 중국의 위상 변화 등의 관점에서 『유랑지구』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영화의 흥행 이후 진행되고 있는 담론의 재생산을 통해 『유랑지구』가 갖는 독특한 상호텍스트성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영화 『유랑지구』의 등장 배경

환호가 되었던 우려가 되었던, 『유랑지구』를 보는 시각은 다양한 현실 요인들을 투사하고 있다. 그 동안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SF영화 속 영웅담이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흥행에 성공해온 것은 그것이 거북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미국은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굴착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외계인과 싸우고(『인디펜던스 데이』, 1996) 지구와 충돌하려는 소행성을 파괴하는 등(『아마겟돈』, 1998)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맞서느라 동분서주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다가오는 전 인류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행성을 찾아 떠나고(『인터스텔라』, 2014) 화성에서의 생존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國中小學生推薦優秀影篇篇目》的通知, 2019년 9월 6일, http://www.moe.gov.cn/srcsite/A06/s3325/201909/t20190917_399487.html.

(『마션』, 2015). 이러한 위기해결 방식은 언제나 미국식 영웅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완전히 부정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곤 했다. SF영화 속 우주선과 우주복, 복잡한 기계 설비에 새겨진 'NASA'는 지구인이 우주를 향해 외치는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었다. 만에 하나 외계인의 침입이 발생한다면, 정말 지구를 버리고 새로운 행성을 찾아야 한다면 미국의 리더십을 요구, 혹은 적어도 기대하지 않을 나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개혁개방 40년 만에 G2로 성장한 중국이 항공우주산업에서도 빠른 발전을 거듭하였고, 2019년 1월 3일에는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2003년에 이미 유인우주선 선저우5호(神舟五號) 쏘아올린 만큼, 우주선에 새겨진 한자(漢字)나 중국인 우주비행사의 모습도 낯설지 않다. 이러한 현실맥락은 영화 제작 과정에도 중요한 전제가 된다. 『유랑지구』의 귀관 감독 역시 이 점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말하자면 이제 중국이 SF영화를 찍어도 될 만한 때, 중국의 SF를 관객이 받아들일 만한 때가 온 것이다.

SF영화는 국가의 실력과 연결됩니다. 국가가 강대하지 못하면 일반 관중은 자국민, 자국의 '솔루션'으로 세계의 위기를 해결한다는 것에 믿음을 가질 수 없죠.…… 위투(玉兔)호가 달에 가서 그 뒷면을 찍어 보내준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스크린에서 중국의 우주시스템, 중국의 우주비행사를 보고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중국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¹⁰⁾

이러한 중국의 발전이 영화를 둘러싼 콘텍스트의 변화라면, 내부적으로 영화 제작 및 유통, 상영 환경에도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이 "영화 산업의 공공성만을 강조하던 '사업(事業)' 개념을 탈피하고 경제적 의미를 강조하는 '산업(產業)'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¹¹⁾했다면 귀관 감독은 영화의 제작과정을 소개하는 다수의 인터뷰에서 영화의 '공업(工業)' 개념을 여러 차례 언급한다. 영

10) 鄒松霖, 「專訪“流浪地球”導演郭帆:科幻和藝術的背後是工業化」, 『新浪財經』 2019년3월1일, <http://finance.sina.com.cn/roll/2019-03-02/doc-ihxncvf9161314.shtml>.

11) 박정수, 『중국영화산업』,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2015, 76쪽.

화의 창작이 한 사람의 표현예술이 아니라 표준화된 시스템 아래 다수의 영역, 다수의 인력 간에 분업과 협업이 이루어지는 공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익히 알다시피, 신중국 건립 이후 영화는 공공 ‘사업’으로서 대중을 교육시키고 사상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공산당 중앙선전부의 영도 아래 놓여 있었다. 중국공산당이 영화의 선전 기능을 인식하고 특별히 중시했던 덕분에 단기간 내에 제작, 배급, 상영에 있어 전국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대중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지만 상업성은 철저히 배제되었다.¹²⁾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시장화 개혁을 거쳐 영화의 생산과 소비에 시장원리가 도입되고 문화상품으로서 상업영화 제작이 이루어졌다. 비록 검열을 통한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통제는 지속되었지만 영화의 생산, 유통, 상영 주체가 독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변화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달라진 정책과 시장의 변화를 가장 빨리 포착하고 활용한 것이 바로 허수이펜(賀歲片)이다. 1997년 연말 상영된 펑샤오강(馮小剛) 감독의 『갑방을방(甲方乙方)』이 성공을 거두면서 본격적인 상업영화의 등장을 알렸다. 음력설을 전후로 상영되는 ‘서민적 코미디영화’는 중국영화의 상업적 모델로 자리 잡았다. “서민들의 욕망을 찾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¹³⁾는 감독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관객은 소비자로서 시장의 주체가 되었다.

본격적인 변화는 2000년대 들어 나타났다. 2002년 당16대 보고에서 ‘문화산업’이라는 어휘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뒤이어 2003년 10월 중공 16차 3중전회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몇 가지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中共中央關於完善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에서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기하면서 (영화를 포함한) 문화영역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 잡았으며 향후 ‘산업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임을 예고했다.¹⁴⁾ 확대된 시장 수요는 2000년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12) 신중국 건립 이후 영화산업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는 박정수, 『중국영화산업』,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2015, 44-59쪽 참조.

13) 余馨, 『與馮小剛談《不見不散》』, 『當代電影』1999년 1기.

14)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영화의 산업화 개혁이 2002년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관점이다. 尹鴻, 梁君健, 『從解放生產力走向提升競爭力—產業化改革十年來的中國電影制片業』

산업화 정책의 한 축을 형성했고, 영화로 자본이 유입됨에 따라 대작영화의 제작이 가능해졌다. 이런 변화 속에서 2002년 중국 최초의 블록버스터라 할 만한 『영웅(英雄)』이 나올 수 있었다.¹⁵⁾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쳐 중국의 영화산업은 비야흐로 ‘공업화’의 단계를 지나고 있다. 『유랑지구』의 성공과 함께 실제로 영화제작이 진행되었던 장소—중국 칭다오(靑島)에 위치한 동팡잉두(東方影都) 영화산업단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8년 4월 28일 준공된 이곳은 ‘동방의 할리우드’를 목표로 세계 일류 영상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스스로를 ‘공업영화기지’로 자리매김했다. 단지 내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1만 제곱미터의 단일 촬영스튜디오와 세계 유일의 실내외 일체형 수중 스튜디오 외에 40여 개의 세계적 수준의 스튜디오를 갖추었고 촬영과 제작, 편집까지 단지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제작환경을 제공한다. 『유랑지구』는 2017년부터 이 단지 내 8개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하며 15개월간의 계획과 디자인을 거쳐 수만 개의 소품을 제작하고 약 1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배경을 만들어냈다. 영화 속 우주선과 운반 차량, 행성발동기, 지하도시와 눈으로 뒤덮인 미래세계의 모습이 모두 이곳에서 만들어졌고¹⁶⁾ 영화 속 특수효과의 약 80%를 중국 본토 기술팀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¹⁷⁾

이밖에 칭다오시에서 내놓은 「영상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몇 가지 의견(關於促

『當代電影』 2012년 7기, 詹慶生, 「產業化十年中國電影合拍片發展備忘(2002-2012)」, 『當代電影』 2013년 2기 등 참조.

15) 블록버스터를 높은 예산과 스펙터클한 장면 등을 특징으로 하는 영화로 이해할 때 『영웅』 이전에 이러한 영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블록버스터를 번역한 중국어 ‘大片’과 거대서사극을 의미하는 ‘巨片’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두 용어는 혼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지칭할 때는 ‘好萊塢大片’이라고 하여 ‘大片’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거대영화(巨片, 인용자 추가)는 “정부가 ‘주선율’로 부르는 것, 즉 교육(선전선동)을 우선시하는 노선을 따른다. 반면 ‘대작영화(大片, 인용자 추가)’는 여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거대영화’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크리스 베리, 「대작영화에서 대작이란 무엇인가? 한국과 중국에서 블록버스터를 ‘탈서구화하기」, 권은선, 김소영 등 지음, 『한국형 블록버스터 아틀란티스 혹은 아메리카』,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1, 99쪽.

16) 王欣, 「探訪東方影都: 大片孵化器」, 『走向世界』 2019년 11기.

17) 許曉青, 「科幻電影《流浪地球》“意外”大獲成功的背後」, 『中國日報網』 2019년 2월 22일, <https://baijiahao.baidu.com/s?id=1626132982272896146&wfr=spider&for=pc>.

進影視產業發展的若干意見)에 따르면, 칭다오시, 서해안신구, 룡창(融創)그룹이 출자해 설립한 50억 위안 규모의 영화산업발전기금을 통해 상영시간 60분 이상의 국산영화, 중외합작영화, 회당 30분 이상의 20회 이상 규모의 국산 드라마, 중외합작드라마 등에 대해 20%~40%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¹⁸⁾ 『유랑지구』가 “많은 해외 SF영화가 제작비로 2, 3억 달러 씩 쓰는 상황에서 5천만 달러의 비용으로 볼 만한 시각효과를 구현”¹⁹⁾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영화산업 인프라와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3. 중국식 영웅과 세계 상상

영화산업 외에도 중국이 가진 실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지난 40여년 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래 광대한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던 중국은 어느덧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하여 세계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경제 대국이 되었다. 현대화의 후발주자로서 학습의 대상이자 목표로 삼았던 세계가 이제는 중국을 주시하고 중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세계를 보는 중국의 관점에도 이에 따라 변화가 생겼을 것임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춘제당이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마음껏 과시하는 애국주의 대작들을 선보이고 흥행에 성공해온 것은 이러한 추측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전랑2』(2017), 『홍해행동(紅海行動)』(2018)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중국의 특수부대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문제(해적, 반군, 테러집단)를 해결하고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활약상을 그렸다. 『전랑2』는 56억8천만 위안의 흥행기록을 남기며 중국 역대 박스오피스 순위 1위를 차지했고, 『홍해행동』은 36억4700만 위안으로

18) 李丹陽, 「工業化生產、全鏈條配套: 青島東方影都助力中國電影開啓工業化新紀元—對話青島靈山灣影視局(籌)副局長趙芳」, 『現代視聽』2019년 4기.

19) 李行, 「《流浪地球》: 不那麼“硬”的硬科幻電影」, 『中國新聞週刊』2019년 2월 7일, <https://baijiahao.baidu.com/s?id=1624783971278057660&wfr=spider&for=pc>.

5위에 올라있다.²⁰⁾ 이처럼 흥행에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 애국주의 대작들이 다시 일어난 중화민족의 힘을 과시하는 설정에 대해서는 중국 내부에서도 불편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 실제로 자국민을 보호하고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선악이 너무도 분명한 상투적인 대립 구도 속에서 '절대적 정의'를 자처하는 중국을 그리는 설정에 일각에서는 비판, 혹은 냉소를 보냈다.²¹⁾

그러나 중국의 애국주의 영화 속 영웅 형상이 미국 할리우드의 문법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량2』, 『홍해행동』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할리우드의 영웅 형상과 공통점이 있지만, 동시에 대단히 '사회화', '규범화된' 캐릭터를 보여준다. 할리우드의 영웅이 때로는 개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인물로 규칙을 무시하고 조직과 충돌을 빚어가며 고군분투 끝에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중국의 영웅들은 영어를 사용해 의사소통을 하며 중국 군대는 UN의 승인 없이는 공격에 나서지 않는 등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한다. 보편적 정의를 추구하되 철저히 기존 국제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이들의 모습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역할을 하되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중국이 그대로 체현된 것처럼 보인다.²²⁾

그렇다면 'SF'라는 새로운 장르를 빌려 탄생했지만 여전히 애국주의 대작이라는 꼬리표에서 자유롭지 못한 2019년의 춘제당 『유랑지구』는 어떨까. SF가 “20

20) 바이두(百度) 백과 참조, 中國電影票房, <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9B%BD%E7%94%B5%E5%BD%B1%E7%A5%A8%E6%88%BF/4101787?fromtitle=%E4%B8%AD%E5%9B%BD%E7%A5%A8%E6%88%BF&fromid=16768640&fr=aladdin>.

21) 관련 영화 기사들을 보면 '含金量'이라는 단어가 종종 눈에 띄는데, 금 함유량을 나타내는 단어 '함금량(含金量)'에서 '金'을 『전량』 시리즈와 『유랑지구』에 잇따라 출연한 배우 우징(吳京)의 '京'으로 바꾸어, 우징으로 대표되는 영웅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정서가 영화나 드라마 속에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빗대어 쓰는 신조어다. 바이두 <https://baike.baidu.com/item/%E5%90%AB%E4%BA%AC%E9%87%8F/23300007?fr=aladdin>.

22) 강내영, 「중국 애국주의 영화 열풍 현상 연구: '특수부대 전량2(2017)', '홍해행동'(2018)을 중심으로」, 『중국문화연구』 41호(2018년) 참조. 이 논문에서는 주인공의 캐릭터를 분석해 최근 중국 영화에서 드러나는 글로벌 대국주의 내셔널리즘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세기와 21세기 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적, 정치적 움직임들과 관계가 있으며 미래 사회의 방향에 대해 진지한 고찰을 유도²³⁾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중국이 어떻게 세계를 그리는가, 또한 이러한 세계에서 중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위치 지우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 이 영화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 지구화된 경제시스템 속에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G2라 일컬어지는 미중 두 대국이 견제와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지금, 이 영화에 대해 중국 대중이 보여준 열광적인 반응도 예사로 보아지지 않는 대목이다.

영화가 보여주는 미래는 제목에서도 말해주듯 ‘떠도는 지구’의 모습이다. 그동안 할리우드 영화가 미국을 중심으로 외부로부터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외부로 확장함으로써 인류를 지키려 했다면, 『유랑지구』는 내부/외부, 중심/주변의 틀을 벗어난다. 외부의 적이 없는 지구는 광활한 우주를 떠돌 뿐이다. 태양이 급격히 노화되어 팽창함에 따라 태양계의 질서가 무너지자, 더 이상 태양을 중심으로 돌 수 없게 된 지구가 기존의 질서인 태양계를 벗어나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선 것이다.

태양계가 폭발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란 우주선을 타고 태양계를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영화 속에서 우주를 떠도는 것은 우주선이었다. 그런데 『유랑지구』는 지구를 움직임으로써 우주선을 선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뛰어넘은 채 곧바로 새로운 생존 환경에 처한 지구 인류의 삶으로 관객의 시선을 이끈다.²⁴⁾ 유랑하는 지구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하도시로 옮겨가 삶을 이어간다. 지하도시에는 학교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명절 분위기도 내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점차 내용이 전개되고 위기가 다가오면서 문득 미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등장인물 중에는 미국인이 없다. 따라서 미국인과 대립, 혹은 협력하는 일도 없

23) 장정희, 『SF장르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16, 13쪽.

24) 예컨대 우주선에 탈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 다른 행성에서 외계 생명체와 충돌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식민의 문제 등을 언급할 필요가 없어졌다. 『유랑지구』에서도 추첨을 통해 지하도시에 들어갈 사람을 뽑은 것으로 암시되지만 그 상황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고, 영어조차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지구 밖 우주정거장의 인공지능 시스템 ‘모스(MOSS)’는 영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의 역할은 소통이 아니라 지시와 통제이다. 우주비행사들은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며, 목소리로만 등장하는 연합정부 역시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 등 각국의 언어를 사용한다. 영화가 상상하는 미래 세계는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번역이 가능해진 것인지, 적어도 영어가 가졌던 언어 패권은 해체된 모습이다. 언어뿐 아니라 과거 SF영화에서 ‘NASA’와 성조기가 있었을 법한 자리에는 연합정부 깃발과 각국 국기, 혹은 ‘Made in China’가 새겨졌다. 유랑하는 지구는 여전히 인류의 삶의 터전이지만 여기에서 미국은 태양과 함께 빠져있다.

이러한 영화 속 미국의 부재(不在)를 현실에 대입해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운용되어왔던 국제질서에 대한 일종의 폐기선언으로 보인다. 미국이 보이지 않는 ‘새 판 짜기’에는 소위 ‘중국적 가치관’이 채워진다. 태양계를 떠나는 것은 지구인’이 아니라 ‘지구’다. 1만개의 거대한 추진장치—행성발동기를 건설해 지구 자체를 이동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가동되는 행성발동기의 동력에 의해 지구인을 싣고 움직이는 지구의 모습은 소수의 영웅이 활약하는 할리우드식 문법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지구가 소멸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앞두고 도움을 요청하는 중국인 소녀의 호소에 한국군이 가장 먼저 차를 돌려 호응하고 뒤이어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영국군이 속속 돌아와 힘을 보태는 장면 역시 그 동안 보아왔던 영웅 서사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순간 자기희생을 통해 지구를 구해내는 류페이창(劉培強)은 어떤가. 우주선을 통제하는 모스의 지시를 거스르며 단독행동을 하는 모습이 언뜻 국제법을 철저히 지켜온 『전랑2』, 『홍해행동』의 영웅들과 달라 보이는 듯 하지만 그 역시도 러시아 비행사와 함께 움직이고 끝까지 모스를 설득하려 하며 결국에는 연합정부의 목인을 얻어낸 끝에 목적을 파괴하는 자신의 계획을 완수한다.

이렇게 영화에서는 미국이 되었든, 외계의 무엇이 되었든 중국 외부의 것을 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영웅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기 보다는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질서가 힘을 잃어버린 미래와 그 안

에서 필요하게 될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경찰, 수호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일까?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오히려 한사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는 조심성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베이징(北京)을 출발한 행성발동기의 연료가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필리핀을 거쳐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고, 각국의 지원군이 자기 나라의 이름을 외치며 달려와 협력함으로써 류패이창의 자기희생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듯, 중국의 영웅(들)은 국경을 초월한 ‘운명공동체’ 안에서 주도하되 강요하지 않고 상호존중에 입각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이 상상하는 ‘운명공동체’에 미국의 자리는 없으며, 이들의 약속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를 향하고 있다.

4. 중국의 지식체계 속 『유랑지구』 해석

『유랑지구』가 인기를 더해가면서, 인터넷에는 영화에 대한 해외의 반응을 전하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중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관점을 제공해주었다”, “시각효과와 촬영이 할리우드에 뒤지지 않는다”는 해외 네티즌의 반응 외에 『아바타』로 잘 알려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귀관 감독에게 “중국 SF영화의 여정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했다는 축하 인사도 있었다.²⁵⁾ 바로 이것—세계로 나아가서구 선진문화로부터 인정받고 중국을 이해시키는 것이야말로 1980년대부터 중국 문화계가 갈망해왔던 ‘해외진출(走出去)’전략의 출발이자 목표가 아니었던가. 이런 의미에서 『유랑지구』는 개혁개방 40년 중국 문화계의 숙원을 풀어준 영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미국을 철저하게 비가시화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을 모색하는 영화의 내용과는 달리 영화를 둘러싼 해석과 담론에 있어서는 해묵은 중국/서구의 이원대립이 오히려 두드러진다. 이러한 해석은 계속 강화될

25) 嚴敏, 「別樣“地球”征服全球」, <http://www.yidianzixun.com/article/0LKNLiYg>.

가능성이 있는데, 이 영화가 최근 중국의 초·중등교육과정에 적극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²⁶⁾ 특히 주목받고 있는 『유랑지구』의 가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영화가 갖고 있는 과학적 의의이고, 또 하나는 앞서 지적한 바 있는 ‘중국적 가치관’의 선양이다.

1) 해석 하나: “중국의 첫 하드SF영화”

2014년 ‘중미 영화인재 교류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4명의 젊은 감독과 함께 미국 할리우드를 방문한 귀관 감독은 “우리가 덜컹덜컹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미국은 이미 페라리를 몰고 있음”을 목도하고 “첫째는 나 자신의 꿈을 위해, 둘째는 국산 영화의 체면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에서 SF영화를 만들겠노라 결심했다.²⁷⁾ 근대 서구문명의 충격 속에 ‘계몽’을 주장했던 지식인파도 비슷한 동기로 영화 제작이 시작되었을 때, 서구의 틀에 중국의 가치관을 담는 ‘중체서용(中體西用)’의 실천과 해석이 이어지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근대의 ‘과학소설’이 그랬듯, 이 성공한 ‘하드SF영화’는 과학교육, 기술보급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SF영화가 과학지식을 직접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아빠 엄마와 『유랑지구』를 보고 나서 SF소설과 천문학에 빠졌습니다”²⁸⁾라는 초등학교 6학년생의 작문이라든가, 영화 속 용어와 과학적 원리 설명²⁹⁾, 청소년과 우주과학자들의 만남과 같은 활동³⁰⁾을 보면 어느 정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파생효과 외에 과학교육이나 기술보급에 있어 어떤 시사점을 제

26) 2019년 2월 영화가 개봉된 이후 9월 말까지 중국 CNKI사이트에서 ‘流浪地球’를 검색어로 입력했을 때 검색할 수 있는 글이 660여 편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80편 이상이 초·중등 교육 관련 간행지를 통해 실린 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글은 학생 작문부터 교사의 글, 시험출제문제,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전문가의 글과 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27) 鄒松霖, 「專訪《流浪地球》導演郭帆: 科幻和藝術的背後是工業化」, 『新浪財經』2019년 3월 1일, <http://finance.sina.com.cn/roll/2019-03-02/doc-ihxncv9161314.shtml>.

28) 趙悅, 「《流浪地球》給我的思考」, 『數學小靈通(5~6年級版)』2019년 4기.

29) 劉昭, 「《流浪地球》里的科學奧秘」, 『少先隊小幹部』2019년 12기.

30) 「筑夢航天, 青春飛揚—湖南省科協開展青少年與航天科學家對面科普活動」, 『第二課堂(A)』2019년 7기.

공해줄 것을 요구하기에는 ‘하드SF영화’로서 『유랑지구』가 담아내고 있는 ‘과학기술’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다. 분류하자면 하드SF는 “스토리텔링보다는 과학적 근거와 이론에 더 초점을 두고 있”으며³¹⁾ “논리 전개가 과학 자체에서 연역되어 나왔는가 하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³²⁾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랑지구』를 과연 ‘하드SF’로 분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우선 영화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지구의 ‘유랑’에 있어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표하고 있고, 영화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유랑지구』의 과학적 결함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인터넷상에 퍼지기도 했다.³³⁾ 때문에 정작 SF계에서는 영화 『유랑지구』를 ‘하드SF’로 분류하기를 꺼리고 있다.

영화적 상상력 역시 SF영화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과학적으로 완전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랑지구』 자체도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과학적 요소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재난을 앞둔 사람들의 갈등과 협력, 가족의 반목과 재구성이 큰 줄기를 이룬다. “귀관과 공거얼(龔格爾, 제작자)은 각본작업 초기부터 ‘SF’ 요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제하는 모습이였다. 그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시각효과나 미술이 아니었다. 가장 보편적인 정서, 매우 단순하면서도 특수한 시간,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인물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들이 완성하고자 노력하고 또한 욕심을 낸 것이였다.”³⁴⁾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유랑지구』에 ‘하드SF’를 붙이고자 하는 이들은 대부분이 영화가 탄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처음으로 만난 ‘제대로 만든’ SF, 한 편의 ‘웰메이드’ SF영화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³⁵⁾

31) 장정희, 『SF장르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16, 53쪽.

32) 李勤余, 『《流浪地球》의改編: 理性屬於科幻文學, 感性屬於科幻電影?』, 『澎湃新聞』 2019년2월7일,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963399.

33) 『流浪不是一種生存方式—關於《流浪地球》的科學槽』, <https://www.douban.com/note/217827164/>.

34) 朔方 등 편저, 『《流浪地球》電影製作手記』, 北京: 人民交通出版社股份有限公司, 2019년, 33쪽.

35) 실제로 중국어 ‘硬’에 ‘단단하다’ 외에 ‘실력이 있다, 질이 좋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다. 언론 보도에서 ‘하드SF’라는 용어는 주로 이런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랑지구』는 진정한 의미에서 첫 ‘중국 하드SF’ 블록버스터다. 영화 속 종말이 닥치기 직전의 베이징, 얼음으로 뒤덮인 상하이, 지하도시의 명절분위기, 중국적인 교통법규 안내 등이 모두 이 거대한 SF의 배경이 본토화되었음을 상기시켜준다.”, <http://news.163.com>

실제로 영화제목에 '하드SF'가 붙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의 첫 하드SF영화'라는 수사로 사용되는 경우다.³⁶⁾ 이 수사를 통해 이들이 찬사를 보내는 '과학기술'이란 중국의 우주기술이나 과학의 수준이라기보다는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그래픽, 특수효과, 시각효과에 가깝다. 물론 이것이 최근 중국영화의 발전방향을 '중공업영화'에 두고 있는 흐름에 부합하는 동시에³⁷⁾ 그 비교대상이 바로 '할리우드 기준'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2) 해석 둘: “중화 전통문화의 우수성”

『유랑지구』는 지구가 타이틀 롤을 맡은 영화다. 그만큼 '지구를 옮긴다'는 설정은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와 맞닿아있다. 이러한 영화의 설정은 토지와 집에 애착을 갖는 중국문화의 '내핵'이자 농경문명의 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영화의 원작인 소설 『유랑지구』에서 지구를 옮기는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생태시스템 유지에 필수적인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말하는 '생태시스템'은 태양을 중심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인류를 존재하게 한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환경으로, 단순히 농경문명으로 대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비록 할리우드의 영웅들이 외부의 적을 무찔렀다고는 하나, 그들이 지키고자 한 것도 인류의 삶의 터전과 가정,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 아니었던가. 그 동안 할리우드의 수많은 SF영화들이 우주비행사의 눈을 통해 보여준 '창백한 푸른 점'—지구는 끝없는 공간 속에 외롭게 떠있는, 인류의 '근원'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치로 작동하곤 했다. 말하자면 인류의 '집'인 지구를 지키려는 노력은 이전의 SF영화들에서 자주 등장한 설정이며³⁸⁾ 중국산 SF영화의 탄생에 흥분해 '지구를 옮긴다'는 설정만으

/19/0209/10/E7IN6E1T0001899N.html.

36) 이러한 수사는 어느 정도는 중국이 제작하는 정통 SF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관객의 흥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제작 단계에서 『유랑지구』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고 개봉 첫날 코미디 요소가 가미된 『크레이지 에일리언』이 1위에 오른 반면 『유랑지구』는 4위에 머물렀다. 때문에 『유랑지구』은 성공은 사람들에게 '다크호스'의 반격, '새로운 세력의 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37) 趙海城, 「中國電影工業化: 從哪來, 到哪去」, 『現代電影技術』 2018년 5기.

38) 이에 대해 서구 SF 작품에서도 추진 장치를 설치하거나 천체와 맞먹는 규모의 우주선을

로 ‘중국의 이야기’, ‘중국성’에 집착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서구와 중국 간 문화의 차이를 본질화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은 1980년대 다큐멘터리 『하상(何傷)』과 함께 제기되었던 중국의 농경문명/서구의 해양문명이라는 이원대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졌다. 그리고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국 전통문화의 낙후성, 소극성에 경종을 울리고자 구성되어 문화를 단순화, 본질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 논리는 고스란히 ‘중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초·중등교육과정을 통해 주류이데올로기로 강화, 재생산되고 있다. 교육에 있어 성공한 문화콘텐츠를 이용해 국가의 전통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 이해할 만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지나친 편향성을 보일 때는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경직된 국가주의, 애국주의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유랑지구』가 인기를 얻은 후, 고등학교에서는 대입시험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2019년 상영된 국산영화 『유랑지구』는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에 입각하여 천하대동, 조화로운 공생의 가치이념을 융합하고 해외의 SF영화 요소를 받아들여 세계가 연합해 지구를 구해내는 이야기를 통해 국내외 영화 팬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동시에 ‘중국 SF영화의 원년을 열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 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는 문화의 창의성을 지탱하는 유전자이다.
- ② 민족역사에 뿌리를 둔 문화는 세계문화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 ③ 서로 다른 국가와 민족의 문화는 교류, 학습을 통해 융합될 수 있다.
- ④ 중화문화는 교류와 학습, 융합을 통해 창의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³⁹⁾

만드는 등 유사한 설정이 이미 등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林品, 「中國故事·硬科幻·元年—《流浪地球》熱潮中的三大迷思」, 『電影評介』 2019년 9기. 이밖에 영화 『마션』에서 ‘지구의 흙’을 가지고 화성에서 생존한 설정을 들어 흙을 포함한 생태계와 인류의 관계를 보다 넓게 해석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정수, 「유랑지구’의 이율배반: ‘허망’과 ‘희망’—SF영화 《유랑지구》와 원작 소설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67호(2019) 참조.

39) 李天賜, 「2019年高考新課標全國文綜卷_政治試題解析」, 『中學政史地(高中文綜)』 2019년 Z2기.

언뜻 서로 비슷해 보이는 보기들 가운데 모범답안은 ①과 ④가 제시되었다. 문제 안에 이미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와 '해외 SF영화 요소 수용'이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정답의 범위가 제한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한된 범위'가 이미 뚜렷하게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문제가 제한된 질문과 답이라고 한다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문제는 개방적 질문에 대해 제한된 답이 제시되고 있다고 해야 할 듯하다.

『유랑지구』는 '중국의 첫 하드SF영화'로 불린다. 이 영화는 류츠신의 동명소설을 각색해 머지않은 미래에 태양이 노화되고 태양계가 이미 인류의 생존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류가 '유랑지구' 계획을 실행, 지구와 함께 태양계를 떠나 새로운 터전을 찾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19년 2월 5일 개봉 이래, 뛰어난 특수효과와 감동적인 부성애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3월 3일까지 영화의 흥행성적은 45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해외에서도 4천5백만 위안의 수입을 올렸다.

『유랑지구』가 중국 SF영화에서 새로운 성취를 이룬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⁴⁰⁾

주관식으로 서술하는 이 문제에 제시된 모범답안은 다음과 같았다. '갈수록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가 나날이 변화하는 사회생활과 함께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창조적인 변화, 창의적인 발전을 실현했다', '문화자신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화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을 이끌고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 문제가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이나 가치관에 제한되고 있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 과학기술의 중요성, 세계 문화와의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사유가 가능함에도 여전히 전통문화에 대한 편향적인 해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통 중화문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영화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미국(서

40) 王邦樂, 「2019年中考道德與法治模擬試卷(四)」, 『中學政史地(初中適用)』 2019년 Z1기.

구)이 영화와 관련된 담론이 재생산되는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환기되고 있다. 영화에서는 미국을 비가시화할 수 있었지만(그렇게 해야 중국의 이야기를 갈등이나 충돌 없이 풀어낼 수 있으므로),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하기에 중국/서구의 이원 대립 구조에 기반한 해석이 되풀이되고 영화 자체는 전 지구적 위기를 함께 타개 하려는 범세계적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에서는 오히려 ‘중국 고유의’, ‘중국의 이야기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4. 나가며

『유랑지구』의 제작과 흥행은 중국영화사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중국 춘제당은 서민적 코미디, 역사물, 애국주의 대작을 넘어서서 보다 다양한 장르와 주제로 확장할 것이고 이러한 시도 속에서 중국 영화산업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해야 할 일은,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에서 영화에 가치관을 담고 그것을 해석해냄으로써 영화를 둘러싼 지식체계를 점차 풍부하게 구축해가는 일이다.

서구의 과학소설을 소개했던 만청(晩淸)의 지식인들이 보기에 과학기담(科幻奇譚)의 출현은 과학 발전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발전의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아니었다. “만청의 과학기담은 일종의 지식체계(episteme)의 전환, 즉 어떤 특정한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미 존재한, 혹은 상상해낸) 지식형태의 전체적인 전환이지 반드시 지식 내용의 비약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⁴¹⁾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랑지구』의 출현은 물론 중국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국가적 실력이 발전한 오늘날의 맥락에서 가능한 것이었겠지만, 동시에 21세기의 중국이 가진, 혹은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고 표현해낼 수 있는 지식체계의 전환이기도 하다.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비판 역시 전환된 지식체계 안에서(혹은 지식체계의 전환을 시

41) 王德威, 『被壓抑的現代性』,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295쪽.

도하며)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찬사가 되었던 비판이 되었던 영화를 둘러싼 담론이 근대 이후 지속되어온 중국/서구의 이원대립과 문화 본질주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유랑지구』 텍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영화를 둘러싼 지식체계에 남아있는 관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랑지구』의 성공에 고무된 중국 영화계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도를 할 것이고 이것은 진정한 지식체계의 전환에 필요한 양분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SF영화의 원년의 도래는 축하할 만한 일이다.

〈參考文獻〉

- 권은선, 김소영 등 지음, 『한국형 블록버스터 아틀란티스 혹은 아메리카』, 서울: 현실문화 연구, 2001.
- 박정수, 『중국영화산업』,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2015.
- 장정희, 『SF장르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16.
- 朔方 등 편저, 『《流浪地球》電影制作手記』, 北京: 人民交通出版社股份有限公司, 2019.
- 王德威, 『被壓抑的現代性』,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강내영, 「중국 애국주의 영화 열풍 현상 연구: '특수부대 전량2(2017)', '홍해해동'(2018)을 중심으로」, 『중국문화연구』 41호(2018년).
- 김정수, 「『유랑지구』의 이율배반: '허망'과 '희망' — SF영화 《유랑지구》와 원작 소설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67호(2019).
- 成文, 「電影工業化視域下的中國電影走出去」, 『現代視聽』 2019년 4기.
- 李丹陽, 「工業化生產、全鏈條配套: 青島東方影都助力中國電影開啓工業化新紀元—對話青島靈山灣影視局(籌)副局長趙芳」, 『現代視聽』 2019년 4기.
- 李行, 「《流浪地球》: 不那麼“硬”的硬科幻電影」, 『中國新聞週刊』 2019년 2월 7일, <https://baijiahao.baidu.com/s?id=1624783971278057660&wfr=spider&for=pc>.
- 李勤余, 「《流浪地球》的改編: 理性屬於科幻文學, 感性屬於科幻電影?」, 『澎湃新聞』 2019년 2월 7일,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963399.
- 李天賜, 「2019年高考试题新課標全國文綜卷_政治試題解析」, 『中學政史地(高中文綜)』 2019

년 Z2기.

- 林品, 「中國故事·硬科幻·元年 — 《流浪地球》熱潮中的三大迷思」, 『電影評介』 2019년 9기.
- 劉昭, 「《流浪地球》里的科學奧秘」, 『少先隊小幹部』 2019년 12기.
- 王邦樂, 「2019年中考道德與法治模擬試卷(四)」, 『中學政史地(初中適用)』 2019년 Z1기.
- 王欣, 「探訪東方影都: 大片孵化器」, 『走向世界』 2019년 11기.
- 許曉青, 「科幻電影《流浪地球》“意外”大獲成功的背後」, 『中國日報網』 2019년 2월 22일, <https://baijiahao.baidu.com/s?id=1626132982272896146&wfr=spider&for=pc>.
- 嚴敏, 「別樣“地球”征服全球」, 『新民週刊』 2019년 2월 20일, <http://www.yidianzixun.com/article/0LKNLiYg>.
- 姚利芬, 「《流浪地球》開啓中國硬科幻電影時代」, 『科技導報』 2019년 2기.
- 尹鴻, 梁君健, 「從解放生產力走向提升競爭力—產業化改革十年來的中國電影制片業」 『當代電影』 2012년 7기.
- 余馨, 「與馮小剛談《不見不散》」, 『當代電影』 1999년 1기.
- 詹慶生, 「產業化十年中國電影合拍片發展備忘(2002-2012)」 『當代電影』 2013년 2기.
- 張慧瑜, 「《流浪地球》: 開啓中國電影的全球敘事」, 『當代電影』 2019년 3기.
- 趙海城, 「中國電影工業化: 從哪里來, 到哪里去」, 『現代電影技術』 2018년 5기.
- 趙悅, 「《流浪地球》給我的思考」, 『數學小靈通(5~6年級版)』 2019년 4기.
- 鄒松霖, 「專訪“流浪地球”導演郭帆: 科幻和藝術的背後是工業化」, 『新浪財經』 2019년 3월 1일, <http://finance.sina.com.cn/roll/2019-03-02/doc-ihxncvf9161314.shtml>.
- 「筑夢航天, 青春飛揚 — 湖南省科協開展青少年與航天科學家對面科普活動」, 『第二課堂(A)』 2019년 7기.

〈Abstract〉

“The Wandering Earth” Wandering in the Space of Patriotism

Kim, Nam-Hee

Released during the lunar New Year season of 2019, “the Wandering Earth” hit great success, jumping to the second place in the box office for all films ever screened on the Chinese mainland. Regarding the film’s achievements, domestic critics highly appreciate its comparatively mature storytelling and overall verisimilar effects, regarding it as the

true beginning of the Chinese SF genre. At the same time, some voiced genuine concerns about the tendency of nationalism and patriotism that recent Chinese blockbuster films seem to promote.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explores the meaning of so-called the first Chinese SF film by looking at how discourses have been evolving on the film's massive success.

“The Wandering Earth” is set in the far future, where the solar system is in danger and all the countries get united in rescuing it under the leadership of China. The film describes the world as a cooperating whole by making the USA invisible. But in reality, “the Wandering Earth” barely excluded the existence of the USA from its production to distribution. In fact, the USA's invisibility in the film, which comes from the China's sense of rivalry with it, reflects the American influence in an ironic way. For example, the film connects the situation of moving the earth with China's agrarian civilization, and this is strikingly remindful of the 1980s' binary thinking of China's agrarian civilization vs. Western marine civilization. Once used to criticize the backwardness and passiveness of China, this binarism is now being re-adopted to highlight the Chinese greatness and its difference with the western culture.

One point that claims our attention is that this binary discourse is being reinforced in school through the curriculum. Since “the Wandering Earth” has been very popular and was included by the Chinese education ministry in the list of recommended films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questions on the film are being asked in the school exams and ‘the exemplary answer’ is widely adopted as the only right way to view the film. In the process, without the space for plural interpretations of the China's first SF film, its meaning is reduced simply to a text that shows well the value of Chinese traditions.

Key words: “The Wandering Earth”, Hard SF, Blockbuster, Chinese culture, Patriotism, episteme

이 논문은 2019년 10월 16일에 접수되어 2019년 11월 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11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